

<2013.06.13.>

## 전 북 일 보

# “문화생태 관광지 고창... 지역발전 이끌 터”

### 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고창군은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 Biosphere Reserves)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 및 주민 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생물권BR 지정을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지정되기까지의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한 설명,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열리며, 고수농공단지와 흥덕산업단지, 14개 읍·면 등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고창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671.52km<sup>2</sup>)가 BR로 지정된 국내 첫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적인 규제사항이 없음과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제도임을 홍보하게 된다. 군은 앞으로 2000년 세계문화유

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지와 2011년 랍사르습지로 등록된 후 생태 탐방로가 마련된 윤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하여 문화 및 생태 관광지화 할 계획이며, BR로고를 제작 지역 농특산물에 부착하여 청정 지역 제품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고추, 고구마, 땅콩, 토마토, 바지락 등의 판매 증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 복안이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 생물의 다양성 보전·지속가능발전 추구

### 고창군 유네스코 등재 설명회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 Biosphere Reserves) 등재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체와 주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671.52km<sup>2</sup>)가 BR로 지정된 국내 첫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제도

임을 홍보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창 BR은 엄격히 보호해야 될 핵심지역(91.28km<sup>2</sup>),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지역(265.54km<sup>2</sup>), 지속가능한 개발지역인 전이지역(314.70km<sup>2</sup>)으로 구분되며, 이중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핵심지역은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군은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와 2011년 랍사르습지로 등록된 윤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하는 문화 및 생태 관광지를 개발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BR로고를 활용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수박 등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와 군민, 행정 등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보존과 관리, 발전을 이끌어 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안가 일부지역에 소득사업을 추진, 일정 수준 성장에 이르면 사업범위를 주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 해설사 육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이강수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는 고창의 발전을 주도하는 신 성장 동력 모델로서 창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군민과 기업인, 출향인 등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 새전북신문

〈생물권보전지역〉

# 고창 BR 등재 후속대책 팔걷어

### 기업대표-주민 등 대상으로 고창 위상 높이기 위한 추진경위-발전방안 논의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 Biosphere Reserves)으로 등재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대표와 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최종 유네스코 BR로 지정되기까지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한 설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고수농공단지, 흥덕산업단지와 14개 읍면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난 10·11일 이틀간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BR지정에 따른 기업인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앞으로 역할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671.52km<sup>2</sup>)가 BR로 지정된 국내 첫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제도임을 홍보했다.

고창 BR은 엄격히 보호해야 될 핵심지역(91.28km<sup>2</sup>),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지역(265.54km<sup>2</sup>), 지속가능한 개발지역인 전이지역(314.70km<sup>2</sup>)으로 구분되며,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핵심지역은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군은 우선 학계 전문가와 군민, 행정 등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보존과 관리, 발전을 이끌어 낼 조례를 제정하고, 해안가 일부지역을 선정 소득사업을 추진 일정 수준 성장에 이르면 사업범위를 주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안내·해설사 육성을 위해 세부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수립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동시에 이룬다는 방안이다.

이강수 군수는 “앞으로 국내 최대 밀집지역으로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지와 2011년 랍사르 습지로 등록된 후 생태 탐방로가 마련된 윤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하여 문화 및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BR로고를 제작, 지역 농특산물에 부착하여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고추, 고구마, 땅콩, 토마토, 바지락 등 판매 증대를 통한 주민 수익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 전북매일신문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7월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와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발전안 찾는다

#### 내달까지 기업대표·주민 간담회 갖고 의견수렴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지난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Biosphere Reserves)으로 등재됨에 따라,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와 고창 관내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최종 유네스코 BR로 지정되기까지 추진 경위와 성과에 대한

설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고수농공단지, 흥덕산업단지와 14개 읍면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난 10·11일 이틀간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BR지정에 따른 기업인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앞으로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 고창군 문화-생태 관광지 발돋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정  
기업인-주민 설명회 개최  
추진경위-발전방향 청취  
지속-체계적인 교육 실시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위원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 Biosphere Reserves)으로 등재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와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최종 유네스코 BR로 지정되기까지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한 설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고수농공단지, 흥덕산업단지와 14개 읍면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난 10·11일 이틀간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BR지정에 따른 기업인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앞으로 역할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고창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671.52km<sup>2</sup>)가 BR로 지정된 국내 첫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고창군은 관내 125개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간담회를 열고 최종 유네스코 BR로 지정되기까지 앞으로 역할과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하는 제도임을 홍보했다.

고창 BR은 엄격히 보호해야 될 핵심지역(91.28km<sup>2</sup>),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지역(265.54km<sup>2</sup>), 지속 가능한 개발지역인 전이지역(314.70km<sup>2</sup>)으로 구분되며,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핵심지역은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군은 앞으로 국내 최대 밀집지역으로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지와 2011년 랍사르습지로 등록된 후 생태 탐방로가 마련된 윤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동립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하여 문화 및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며, BR로고를 제작, 지역 농특산물에 부착하여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고추, 고구마, 땅콩, 토마

토, 바지락 등 판매 증대를 통한 주민 수익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학계 전문가와 군민, 행정 등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보존과 관리, 발전을 이끌어 낼 조례를 제정하고, 해안가 일부지역을 선정 소득사업을 추진 일정 수준 성장에 이르면 사업범위를 주변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이며, 외부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안내·해설사 육성을 위해 세부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수립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동시에 이룬다는 방안이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내달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주민 1200여명 대상 간담회·설명회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오는 7월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와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최종 유네스코 BR로 지정되기까지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한 설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고수농공단지, 흥덕산업단지와 14개 읍면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난 10·11일 이틀간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BR지정에 따른 기업인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앞으로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671.52km<sup>2</sup>)가 BR로 지정된 국내 첫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제도임을 홍보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 국내 최대 밀집지역으로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지와 2011년 랍사트습지로 등록된 후 생태 탐방로가 마련된 운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동립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해 문화 및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한다는 복안이다.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오는 7월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와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BR로고를 제작, 지역 농특산물에 부착해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고추, 고구마, 땅콩, 토마토, 바지락 등 판매 증대를 통한 주민 수익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학계 전문가와 군민, 행정 등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 보존과 관리, 발전을 이끌어낼 조례를 제정하고 해안가 일부지역을 선정해 소득사업을 추진, 일정 수준 성장에 이르면 사업범위를 주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안내·해설사 육성을 위해 세부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수립,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동시에 이룬다는 방안이다.

이강수 군수는 “고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특산물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지역의 명품이 되면서 인지도가 향상되고 브랜드 파워 강화로 높은 가격에 판매돼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체험·생태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등으로 주민 주도형 사업이 활성화되고 관광명소로서 지명도가 상승해 지역 이미지 개선과 함께 군민 자긍심 고취를 통해 21세기 신 성장 동력 모델로서 창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알기쉽게

### 고창군, 기업인 간담회·주민 설명회 개최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Biosphere Reserves)으로 등재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와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

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최종 유네스코 BR로 지정되기까지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한 설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고수농공단지, 흥덕산업단지와 14개 읍면 회의실

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난 10·11일 이틀간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BR지정에 따른 기업인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앞으로 역할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고창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671.52km<sup>2</sup>)가 BR로 지정된 국내 첫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제도임을 홍보했다.

고창 BR은 엄격히 보호해야 될 핵심지역(91.28km<sup>2</sup>),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지역(265.54km<sup>2</sup>), 지속가능한 개발지역인 전이지역(314.70km<sup>2</sup>)으로 구분되며,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핵심지역은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군은 앞으로 국내 최대 밀집지역으로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지와 201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후 생태 탐방로가 마련된 운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해 문화 및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다.

/고창=나인기 기자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기업인 대표와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창군(군수 이광수)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와 주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기업인 간담회 모습.

## 군민과 소통으로 등재 의미 알리고 홍보·협조 요청

고창군(군수 이광수)은 지난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이하BR:Biosphere Reserves)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와 주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최종 유네스코 BR로 지정되기까지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한 설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고수농공단지, 흥덕산업단지와 14개 읍면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난 10, 11일 이틀간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BR지정에 따른 기업인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앞으로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고창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671.52㎢)가 BR로 지정된 국내 첫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제 도입을 홍보했다.

군은 앞으로 국내 최대 밀집지역으로서 지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지와 2011년 랍사르습지로 등록된 후 생태 탐방로가 마련된 운곡

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동립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해 문화 및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며, BR로고를 제작, 지역 농특산물에 부착해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

고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고추, 고구마, 팥콩, 토마토, 바지락 등 판매 증대를 통한 주민 수익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학계 전문가와 군민, 행정 등 주요 관계

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 보존과 관리, 발전을 이끌어 낼 조례를 제정하고, 해안가 일부지역을 선정 소득사업을 추진 일정 수준 성장에 이르면 사업범위를 주변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군민

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이며, 외부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안내·해설사 육성을 위해 세부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수립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동시에 이룬다는 방안이다.

(박동현 기자)

## 고창군, 유네스코 BR 지정 위상 제고

〈생물권보전지역〉

### 기업인 간담회·주민 설명회 개최...추진성과·발전방향 논의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지난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위원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Biosphere Reserves)으로 등재됨에 따라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와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최종 유네스코 BR로 지정되기까지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한 설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고수농공단지, 흥덕산업단지와 14개 읍면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난 10·11일 이틀간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BR지정에 따른 기업인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앞으로 역할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고창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671.52km<sup>2</sup>)가 BR로 지정된 국내 첫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적인 규제사항

은 없으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제도임을 홍보했다.

고창 BR은 엄격히 보호해야 될 핵심지역(91.28km<sup>2</sup>),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지역(265.54km<sup>2</sup>), 지속가능한 개발지역인 전이지역(314.70km<sup>2</sup>)으로 구분되며,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핵심지역은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군은 앞으로 국내 최대 밀집지역으로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지와 2011년 랍사르습지로 등록된 후 생태 탐방로가 마련된 운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하여 문화 및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며, BR로고를 제작, 지역 농특산물에 부착하여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고추, 고구마, 땅콩, 토마토, 바지락 등 판매 증대를 통한 주민 수익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학계 전문가와 군

민, 행정 등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교류 반영하여 보존과 관리, 발전을 이끌어 낼 조례를 제정하고, 해안가 일부지역을 선정 소득사업을 추진 일정 수준 성장에 이르면 사업범위를 주변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이며, 외부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안내·해설사 육성을 위해 세부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수립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동시에 이룬다는 방안이다.

이강수 군수는 “고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특산물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지역의 명품이 되면서 인지도가 향상되고, 브랜드 파워 강화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가 기대된다는 군민 여러분과 기업인, 출향인 등 계층의 많은 분들이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 유네스코 고창알리기 본격화

###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주민·기업인 홍보 설명회 개최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 Biosphere Reserves)으로 등재됨에 따라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와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최종 유네스코 BR로 지정되기까지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한 설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고수농공단지, 흥덕산업단지와 14개 읍면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난 10·11일 이틀간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BR지정에 따른 기업인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앞으로 역할과 추진방

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고창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671.52km<sup>2</sup>)가 BR로 지정된 국내 첫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제도임을 홍보했다.

군은 앞으로 국내 최대 밀집지역으로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지와 2011년 랍사르습지로 등록된 후 생태 탐방로가 마련된 운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하여 문화 및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며, BR로고를 제작, 지역 농특산물에 부착하여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고추, 고구마, 땅콩, 토마토, 바지

락 등 판매 증대를 통한 주민 수익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이강수 군수는 "고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특산물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지역의 명품이 되면서 인지도가 향상되고, 브랜드 파워 강화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이며, 체험·생태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등으로 주민 주도형 사업이 활성화 되고 관광명소로서 지명도가 상승하여 지역이미지 개선과 함께 군민 자긍심 고취를 통해 21세기 신 성장 동력 모델로서 창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민 여러분과 기업인, 출향인 등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창=주행찬 기자·juh131@daum.net



##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순회 설명회

[고창=뉴스1] 박재철 기자 입력: 2013.06.12 15:36:55

전북 고창군(군수 이강수)이 최근 확정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Biosphere Reserves)으로 등재됨에 따라 7월9일까지 관내 125개 기업 대표와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종 유네스코 BR로 지정되기까지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한 설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고수농공단지, 흥덕산업단지와 14개 읍면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671.52㎢)가 BR로 지정된 국내 첫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적인 규제사항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강수 군수는 "고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특산물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지역의 명품으로 인지도가 향상되고, 브랜드 파워 강화로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